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의 신년사엔 그들의 한 해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은색 양복에 빨대 안경을 쓰고 김일성·김정일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 스타일을 연상시키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관료 정치·형식주의·부패 정치와 같은 자이비판을 삼가면서 인민과 인민군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집권 6년차의 안정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토대로 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외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및 남북 관

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 관계 전망

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화국 창건 70주년과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행사와 스포츠 행사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시킨 것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명분 확보에 나름의 고민을 한 흔적이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직접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곧 법이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성격으로 볼 때 평창올림픽 참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될 듯하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대대적 의지를 보였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핵단추가 있다는 것은 소규모의 핵이 실현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핵보유국의 간접 선언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대화를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결을 강조하는 ‘통남분미’ 전술이라고 비판한다. 통남분미 전술에는 남남 갈등·한미 갈등을 야기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는 통미분남 전술을 펼쳤다. 핵 문제·평화 체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담판하려는 의도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올해 신년사는 남측과 대화하고 남북 관계 통로를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통남통미로의 전술적 변화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지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 최고 지도자의 의지 속에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 통일부·문체부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통일부 장관은 NSC 회의를 거쳐 곧장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의 환영 메시지와 즉각적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일 오후 3시 30분(서울시간)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 조치를 취했다. 남북한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속도전이 아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 최고 지도자의 의지 속에서 철저한 준비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간의 조율 시간도 없이 우리 측의 속도전에 대해 한미 갈등을 우려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해 왔다. 대북 압박·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임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

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은 튼튼하다. 북한의 전략 전술에 의해 한미 갈등이 야기되는 시대는 지났다.

북측은 우리 측이 제안한 고위급 당국 회담에 호응할 듯하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 관심사라는 포괄적 의제가 예상된다. 대화 문제, 교류 문제, 안보 우려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요약된다. 남북한은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합의하고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차기 회담 날짜를 잡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합의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했다는 정도만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에 담아도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회담을 촉진시키고, 4자회담·6자회담을 견인하는 1단계 그랜드 플랜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종교칼럼

대화를 ‘잘’ 하는 방법, 침묵



유 기 영
순천 매곡동성당 주임신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까? 필자의 경우엔 시골 본당신부로 살았던 2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이지만 어느 누구와도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고 지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본당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매우 즐겁지만,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참 힘이 듭니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들과의 어쩔 수 없는 만남 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 가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대화가 꼭 즐거움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의 당혹스러움과 난감함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침묵입니다. 침묵해야만 그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만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말을 침묵 중에 잘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신심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침묵입니다. 기도 역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서 초세기의 수도승들은 침묵을 잘 지키기 위한 외적인 준비로서 독방에 오래 머무를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사막의 성인으로 불리는 안토니오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 위에 있다면 죽은 목숨이듯 수도승들도 그들의 독방 바깥에서 오래 지체한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의 영혼은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홀로 자신만의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 5분만이라도 침묵 속에서 고요히 머무를 때, 출렁거리던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참 평화와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 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옹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침묵 중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약해지면, 내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일하고 기쁨이 되는 말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말, 모함하고 비꼬는 말들을 함으로써,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

지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의 교부였던 알바 포에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겉보기에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는 타인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온종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인데도 하지 않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참된 침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그동안 알아 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고 대화할 때 침묵의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침묵할 때만이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침묵할 때만이 상대방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쏟아 내는 한 해가 아니라 깊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말을 하는,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2018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고

영화 ‘1987’을 보고 나서



홍 인 하
전 광주시의원·국제학 박사

얼마 전 영화 ‘1987’을 보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어 간 박종철이 불쌍해서였고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이 안타까워서였다. 영화를 보면서 1987년이 그대로 오버랩되었다. 또 전남대 정문, 금남로, 서현 교회 앞에서 백골단과 대치하며 자유를 외쳤던 그때가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화 ‘1987’은 한국영화 사상 87년 6·10 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상업 영화다. 최루탄과 배라 속에서 대학 시절을 보낸 필자(83학번)는 이 시기가 특별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남편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김천교도소로 이감되어 형을 살고 있었다. ‘타하고 지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에

모두가 분노하며 싸웠었다. 그때 남편은 감옥에서 6월 항쟁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석방되었다.

영화 ‘1987’은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에서 시작해 이한열의 죽음과 그리고 그 두 사건이 촉발한 6월의 어느 날까지를 영상에 담았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이들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각각 내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였는지를 섬세하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었다. 단순한 영웅적 서사나 선악 구도로서 대를 봉합하는 계몽을 비껴 나간다. 대공수사처 처장과 남영동 고문관들의 반공 정서 이면에 일제 감청기와 한국전쟁 냉전이라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광기가 누군가를 어떻게 피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이에 맞서려 했는지 등을 통해 개인의 서사와 아픔, 그리고 갈등을 놓치지 않은 채 시대를 성실하게 기록한다.

영화는 1987년 6월 항쟁의 어느 날에서 끝이 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군부 독재의 재연장, IMF 경제 위기, 세월호 사태, 대통령들의 비리와 구속과 탄핵 등 국민을 낙담케 하는 사건들로 얼룩진 다. 물론 호헌 철폐와 5·18 진상 규명, 남

북 정상회담과 촛불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 등 희망의 순간들도 있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자의 영역을 지키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던 한 해였다. 극단적 대립과 혼란이 있었지만, 법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주적 대통령 선거로 극복해 가고 있다. 피와 최루탄이 사라지고 법과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사회가 30년 전보다는 분명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987년에는 어느 한 명이나 어느 한 집단이 일궈 낸 그들만의 특별한 전사와 추억의 시간이 아니다. 언론인과 종교인, 공무원과 의사, 검사와 교도관, 학생과 평범했던 시민들이 현실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진실을 갈망하며 힘을 모아 시대를 바꿔 간 시간이었다. 30년이 지난 2017년에도 그러했듯이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장 현명하다”고 했다.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믿음하고 있으며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1987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듯이, 국민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것을 믿고 염원한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영화 ‘1987’에 등장하는 인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5·18 묘역을 방문하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 “30년을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허무하고 이렇게 왜 살고 있느냐를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고 괴롭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잊힌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끌려갑니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가 죽은 이한열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갈 애미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서 불러도 불러요. 말도 없어요.”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이자 83학번이던 필자가 87년 그날 함께 불렀던 노래, ‘그날이 오면’의 ‘그날’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직도 피를 머금은 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社 說

국제도시의 경쟁력은 경관에서 결정된다

광주에서 무등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는 그리 흔치 않다. 도심 심은 물론이고 외곽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이 무등산을 가린다. 광주시가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경관을 바꾸기 위해, 저층 건물 건축 시에도 경관 심의를 하는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최근 발표·고시한 ‘2030 광주시 경관 계획’은 영산강과 도시조망 축을 기준으로 한 ‘2개의 경관 축’, 도시역사 문화 구역과 생태 역사 문화 구역을 중심으로 한 ‘2개의 경관거점’, 무등산 자락 및 도심 녹지 하천·농촌 경관 위주의 ‘8개 경관권역’, 중심지로 주변의 ‘7개 연도경관지구’ 등을 지정해 해당 거점 맞춤형 경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관 계획의 핵심은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지정인데, 이 구역에 대한 관리 여부가 ‘2030 경관 계획’의 성패와 직결된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은 무

등산 주변(3.87km), 영산강 주변(39.38km), 송정역세권 주변(0.22k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1.56km) 등 광주의 문화와 생태계의 핵심이다. 이 구역에서는 3~5층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경관 계획을 세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 ‘2020 경관 계획’, 2014년 ‘2025 경관 계획’ 등 두 차례 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도시의 경쟁력은 경관에서 결정된다.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라는 상징성과 무등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돋보이게 할 경관을 갖춰야 한다. 이제 계획은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허사다. 실제로 아파트 건설과 건축허가·도시개발 등의 경우, 경관 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지침의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잊혀진 왕국 마한, 역사의 수수께끼 풀리나

마한은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고대 왕국이었다. 마한 지역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초기 철기 시대 유물에 비하여 청동기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부터 대두되고 있던 선진적인 정치 집단의 존재를 반영한다.

마한 지역 소국의 대부분은 세형동검문화(細形銅劍文化)를 배경으로 성장한 다수의 정치 집단들이다.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대외적으로 통일된 기능을 발휘하는 세력 구심체가 형성되어, 한(漢)나라와 원거리 통교를 시도하기도 했다.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제시대인 1917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국보 295호 ‘신촌리 금동관’이다. 얼마 전 학술대회에서는 이 금동관이 백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도 고대문화인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의 실제 규명과 개발 사업이 본격

화된다는 소식이 있다. 전남도는 최근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동안 6911억 원을 들여 3단계,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영암 시종면의 최대 고분인 내동리 쌍무덤과, 한일 고대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함평 대동면 금산리 방대형 고분을 집중 조사·발굴한다.

마한은 영산강 유역에서 세력을 떨친 왕국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보전·정비는 물론 연구에도 소홀했다.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도 ‘마한은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복속됐다’고 달랑 한 줄 나열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발 사업이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잊힌 왕국 마한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화 ‘1987’에서는 박종철 열사가 수사관들의 물고문 등 가혹 행위로 숨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이 등장한다. 간첩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대공분실은 청와대 인근 육인동과 서빙고동에도 있었다. 악명 높았던 서빙고 대공분실은 사건을 낚초해 수많은 정치·사상범을 고문하던 곳으로 ‘서빙고 호텔’이라 불리기도 했다.

지난 1971년 ‘재일교포 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사건’으로 19년을 옥살이 한 서승 씨는 서빙고 호

서빙고 호텔

장을 찍고 나서 절규했다. “이런 식이라면 나라도 안기부장을 단 일주일 만에 간첩으로 만들 수 있어.”

조작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강유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은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불리는 그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사항과 여행지, 통신·호텔에서 고문을 당하며 박정희 군사정권이 원하는 간첩이 되

야 했다. 하지만 그는 보안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불복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딱하게도 최근 그에게 법정형 위반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영화 ‘1987’이 관객 수 30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영화의 흥행이 군사 정권의 악랄한 고문으로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살아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